

<존엄사 선언서>

나는 내가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나 사망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나의 가족과 친척 및 나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희망을 남깁니다.

이 선언서는 나의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에 작성했음을 밝힙니다. 또한 나의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에 내 스스로가 이것을 파기하든지 또는 철회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유효함을 밝힙니다.

1. 나의 병이 현재의 의학으로는 불치의 상태이고 이미 사망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헛되게 사망시기를 연장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거절합니다.

2. 단, 이 경우 나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으로 실시하십시오. 그 때문에(예, 마취 등의 부작용 등) 사망 시기가 빨라져도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.

3. 내가 수개월에 걸쳐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일체의 생명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.

이상 나의 존엄사 선언이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그 분들이 나의 희망에 따라 행하신 모든 일들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.

20 년 월 일

주민등록번호 : -

이름 : 서명 :